

신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한국학교 소식지

이후

“
아래는 ‘아이’의 옛말이에요.
”

■ 차례

| | |
|------------------------|---|
| 운동회 소식 | 1 |
| 운동회 소식 (사진) | 2 |
| 부모님께 쓴 학생들 편지 | 3 |
| 헛갈리는 한글 상식 | 4 |
| 날말마을 | 4 |
| 만화 (정하 흥편진) | 5 |
| 부모님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 6 |
| 부모님 세대! 알까? 몰라?!! | 6 |
| 광고 | 6 |
|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 7 |
| 건의사항 | 7 |
| 달력 및 알림 | 8 |
| 한국학교 2007학년도 학기 일정표 | 8 |



운동회 너무 재미있었어요~

신호세 한인성당 한국학교의 2007년 운동회가 5월5일에 열렸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예쁜 하늘 아래서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선생님들, 무엇보다 학생들 모두가 신이 나고 행복했는데요. 올해에는 더욱 더 새롭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운동회의 시작은 보조 선생님들의 청소년 체조로 시작 됐어요. 보조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은 처음 해보는 체조도 신이 나서 잘 따라 했습니다. 청 팀, 백 팀으로 갈라진 학생들은 각자 파란색과 흰색의 띠를 맨 채, 첫번째 게임인 다리 수 놓이기를 시작 했어요. 서로에게 얽히고, 안기고, 포개진 채로 팀 전체가 최선을 다해야 했던 즐거운 게임이었어요. 그 후에는 팀끼리의 단합을 더욱 강하게 한 응원전이 시작됐어요. 학생들은 다 함께 응원가와 구호를 만들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점점 좁게, 점점 번으로 좁혀져서 좁아져만 가는 못자리 위에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서있어야 했던 어려운 경기였지만, 두 팀 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승부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학생들의 다음 경기는 용으로 글자 만들기였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양 팀 학생들은 다 같이 높고, 얇고, 몸을 둥그렇게 굳히거나 쪽 편 채로 질문에 대답해야 했어요. 용으로 글자를 만드는 일은 처음이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다시 한 번 한글공부의 재미를 찾을 수 있었지요. 글자를 예쁘게 만든 형 팀은 반점을, 더 많은 학생들로 더 큰 글자를 만든 백 팀은 반점을 받아서 두 팀 모두 승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장애물 달리기에서는 학생들이 장애물을 기어 지나고, 손대지 않은 채 높이 대롱대롱 달린 과자를 먹은 후에

, 양 구르기를 해서 풍선을 터뜨리고 포대를 입은 채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해야 했는데, 이 경기를 할 때에는 두 팀 모두의 응원전 또한 대단했습니다. 모두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열심히 구경하며 자기 팀을 응원했기 때문에 재미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 주자로는 두 신부님께서 직접 달리셨습니다. 열심히 달리신 양 신부님 덕에 승리는 청 팀에게 돌아갔지요. 모두들 열심히 한 후에는 운동회의 점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맛있는 갈비와 김치와 밥과 여러 가지 반찬들, 그리고 과일까지! 학생들은 맘을 풀린 만큼 든든히 먹고 오후 경기를 위해 준비를 했어요. 조금 시원해진 오후 시간에는 포리잡기 경기를 처음으로 오후 경기가 시작됐어요. 양 팀 학생들은 한 줄로 한 줄이 되어서 열심히 숨고, 달리고, 피해가면서 상대편의 포리를 잡기 위해 달려다가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재미있었지만 결국은...

* 2번째 운동회 사진과 기사를 이어집니다.

환영해요~

* 새로 오신 선생님들께요



최효은 선생님



하수진, 이지연 선생님

또 한번의 우승부가 나버렸습니다. 이 때까지도 지치지 않았던 우리 학생들은 시원한 물풍선 짚어넣기 경기를 시작했어요. 당일에 한명씩 보조 선생님이 바구니를 든 채로 학생들이 던지는 물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많이 받아야 했는데, 물풍선이 터지면서 바구니 밑에 있던 보조 선생님이 젖어가는 모습에 우리는 모두 신나게 웃었습니다. 시원해진 몸과 기분으로 학생들은 마지막 경기로 줄다리기를 했어요. 마지막 경기인 만큼, 학생들과 보조 선생님들 모두가 힘차게 '영차 영차' 소리를 외치며 손이 어파울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줄을 당겼어요. 한번의 청 팀의 승, 한번은 백 팀의 승으로 마지막 경기도 우승부가 되었지요.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 학생들은 어느 팀이 이겼나 하는 사실보다는 모두 즐거운 운동회의 기억과 귀엽고 예쁜 돼지 저금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쁘게 웃었으며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2007년 운동회, 끝나고 싶지 않은, 아쉬웠던 운동회의 기억을 아무도 잊지 않겠지요?

에디핀 기자



1



2



3



4



5



6



7

- 1 애들이 제일 길어~ T_T
- 2 빨리 포리깁대!
- 3 고자야, 내 입안으로 물어와~
- 4 내가 얼마나 길워는데!
- 5 어~어~ 물어간다~
- 6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면 1등
- 7 영차, 영차, 행동 위해 힘써~



• 아래 학생들이 부모님께 쓴 편지내용은 본 교지반에서 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하고 아빠에게,
나의 숙제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엄마는
가족한테 돈을 모아서 감사하고, 엄마는
맛있는 밥을 우리 가족한테 해서 감사했니
다. 그리고 옷도 사주고, 피아노도 사주고 (사실은 별짜
잘 짜요), 필통도 사주고, 지우개, 연필하고 재들
을 사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해요
- 홍예연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
니다. 우리랑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음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
하면요. 화이트일 댁 우리 서로 약속 지켜 보자
요. 아빠 엄마 저 이제 장님이랑 안 싸울게요.
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딱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 박정훈



엄마, 저 수습할
때 도와주셔서 고
맙습니다. 저 안
무서워요.
엄마 사랑해요.
- 김민혁



엄마아빠,
한국학교에서
공원으로 놀러
가서 신이네요.
사랑해요.
- 현준호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제부터 저는 공부를 더
잘하겠습니. 공부를
가르쳐주셔서 고맙
습니다.
- 장우혁



엄마아빠께,
나를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나
가지고 싶은 것을 사줘서 감사합니
다. 사랑합니다. 아바, 한국학교
고감 선생님 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출장가지 마세요. 엄마, 나를 봐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 김윤서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계엄기를 사주셔서 고
맙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부터 나를 공부를 열심히
할게요. 일기를 열심히 할
게요. 다 열심히 할게요.
- 성지



엄마아빠께
엄마 미술반에 잘 있으면 좋겠
어요 잘 있었어요. 엄마도 잘
있죠? 다음부터 숙제를 잘하
고 엄마 말을 잘 듣게 노력
해 볼게요. 사랑해요.
- 이승하



엄마와 아빠께,
엄마, 아빠는 맨날 웃음이나오
게 하고, 어떤 때는 장난감도 사주
신다. 엄마아빠는 내가 울 때 나하
고 같이 있는다. 어떤 때는 내가
울 때 재미있는 것을 말해준다.
엄마아빠는 내가 잘못 했을 때 나는 온나는
데 엄마아빠는 아직도 나를 사랑한
다. 엄마아빠 감사합니다.
- 김참



엄마와 아빠께,
매일 겨울 사랑해 주시고 잘 키워 주
셔서 고맙습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기뻐요. 저 다치면 엄마
아빠가 빨리 낫게 해주시고 뭐 필요할 때 사주
시고 재미있게 놀게 해주시니깐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 황윤하





헛갈리는 한글 상식

어떡해 vs. 어떻게

며칠 전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다른 이유는 바로 헛갈리는 한글 때문! 다름의 시작은 친한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였습니다. 저와 한 친구는 동시에 "어떡해..." 를,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를 외쳤지 뭐예요? 우리는 서로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리느라 말다툼을 하다가, 국어사전에서 정확한 뜻을 찾아본 후에야 화해를 할 수 있었어요. "어떡해" 는 "어떻게 해" 의 줄임 말로, 주로 문장 끝 부분에 쓰이므로 친구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친구를 걱정하는 뜻으로 다리가 다쳐서 "어떡해" 라고 한 것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에 비해 "어떻게" 라는 표현은 영어로 "How" 를 의미하는 "어떻게" 의 줄임 말로서 주

로 문장 앞이나 중간에 쓰이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아직도 헛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Stanford 대학교에 불합격 했으니 이름 어떡해?
Stanford 대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공부해 해야 하나요?

라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차이점을 알겠죠? 이런 우리 학생들 모두가 올바른 표현 법을 배워서, 저처럼 사소한 일로 친구들과 티격태격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헛갈리는 한글 때문이면 선생님들에 여쭙보지 다루면 안돼요, 절대요!

- 글/이더원

중 **ㅎ**
O X
두가지 다 사용하나 정자로 쓰여
질책은 왼쪽 글자로 사용 된답니다.



날말퍼즐

*문제를 다 풀었으면 교지반 알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정답자중 3명의 학생에게 선물을 증정합니다.

* 두번째 문제

| | | | | | | |
|----|--|----|----|---|--|------|
| 1 | | 3 | | 4 | | 5 |
| 2 | | | | | | |
| | | 6 | 7 | | | 8 |
| 9 | | | | | | 12 |
| 10 | | 11 | | | | 13 |
| | | 14 | | | | 22 * |
| | | | 15 | | | |
| 16 | | 18 | | | | 19 |
| 17 | | | | | | 21 |
| | | | | | | 20 |

이름: _____

한글반 이름: _____

정답은 다음순에 알려드려요, 꼭 맞춰주세요~

【가로열쇠】

- 배우는 사람. '우리는 OO입니다'
- 수업시간 중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
- 수업을 하는 방.
- 그림을 그리는 커다란 종이.
- 책을 살 수 있는 가게.
-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
- 그녀와 미끄럼틀이 있는 곳.
- 두 개의 날이 있는 종이 등을 자르는 기구.
- 한국학교에서 붙은 ○○○에서 따라 마십니다.
- 선생님께서 집에서 물어오라고 내어주시는 문제.
- 수업의 시작과 끝에 나는 소리는?
- 반의 대표.
- Reading.

【세로열쇠】

- 가르치는 사람.
- 특별활동 시간과 한국학교 수업시간 사이에 먹는 것은?
-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책.
- 소변과 대변을 처리하거나 손을 씻는 장소.
- 5월 5일에 한국학교는 ○○○를 열었어요~
- 한국학교에 책과 공책을 여기에 넣어서 가지고 와요.
- 종이로 작품을 만드는 특별활동반.
- 가지런히 바로잡다. 수업이 끝나후에는 ○○○○를 해요.
- 숙제의 또다른 말.
- 물을 마실 때 쓰는 컵.
- Writing
- 학교를 쉬다. 休校.

정답자중 3명의 학생 발표

- 이름: 유서라
학교반 이름: 북쪽반
이름: 양혜연
학교반 이름: 무궁화 반
이름: 나우징
학교반 이름: 개너리 반

>첫번째 문제답>

| | | | | | | | |
|---|---|---|---|---|---|---|---|
| 열 | 쇠 | 무 | 궁 | 화 | 구 | 구 | 단 |
| 두 | 북 | 전 | 비 | 만 | 군 | | |
| 시 | 간 | 은 | 탈 | 계 | 왕 | | |
| | 하 | 기 | 농 | 길 | 농 | 길 | |
| 고 | 구 | 마 | | | 의 | 사 | |
| 수 | | 하 | 이 | 물 | 보 | | |
| 장 | 독 | 해 | 심 | 감 | 옥 | | |
| | 도 | 전 | 고 | 구 | 려 | 신 | 문 |
| 합 | 망 | 드 | | 중 | 각 | | |
| 정 | 원 | 대 | 보 | 함 | 연 | 신 | 라 |



단군 왕검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야. 우리 한국인의 뿌리는 어디일까?

우리 민족은 단군 왕검으로부터 시작했어. 오늘은 우리의 뿌리, 단군 왕검에 대해 들려줄게.

아주 아주 옛날의 일이야. 그때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환웅은 인간 세계를 정말 좋아하고 항상 자계했어. 그런데 환웅이 보기에는 인간들이 너무 나약해서 인간들을 도와주고 싶었었어. 그래서 환웅은 환인에게 자기가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부탁했단다. 환인은 아들의 부탁을 기질하지 못하고 인간 세계에 보내주었어. 또, 다스리기 좋은 곳도 정해주었지. 그곳은 태백산(지금의 묘향산)이야. 환웅은 환웅을 따르는 3000여명의 무리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태백산의 꼭대기 산단수로 내려왔어. 풍백은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신, 우사는 비를 다스리는 신, 그리고 운사는 구름을 다스리는 신이야. 환웅은 인간 세계에 내려와 '국삭, 수명, *정령, *형벌 등등 인간의 360가지의 일을 맡아서 사람들이 살기 좋게 세상을 다스렸다고 해.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 안되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황당하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에 바탕을 둔 역사적 기록이야. 먼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정말 환웅이 하늘에서 뿜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야.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환웅이 더욱 뛰어난 문화를 가진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민'인 것을 말해. 누군가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고 사실 이 세가지는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조건'이야. 결국 이 세가지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때가 '농경사회'인 것을 보여주는 거란다.

단군신화가 아직 길간게 아니야. 진짜 주인공인 단군왕검은 등장하지 않았어. 환웅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고 세상을 다스리던 어느 날, 사람이 되고 싶은 공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나타나 자기들을 사람들로 만들어 달라고 믿었어. 환웅은 악과 마른을 공과 호랑이에게 주면서 3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며 죽어 마른안 먹고 버티면 사람이 될 수 있을거라고 말했어. 참을성 많은 공은 환웅과의 약속을 지키어 버틴 어자가 되었어. 하지만, 호랑이는 겁많은 생활을 참지 못해 약속

을 어겨 사람이 되지 못했지. 사람이 된 공은 웅녀라고 불렸어. 웅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정말 하고 싶어 했는데, 이를 보던 환웅이 웅녀를 "딱하게 어겨 웅녀와 결혼했단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어기가 바로 '단군왕검'이야.

어기가 감엔, 공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사실 어기가 공, 웅녀는 진짜로 공이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웅녀는 태백산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공을 신으로 섬기던 부족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공과 함께 환웅을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되지 못한 호랑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런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던 부족이 태백산 지역으로 온 환웅 부족에 "지향하다가 '태백산'으로 보면 돼. 결국 조산은 환웅 부족과 공을 섬기던 부족이 서로 만나 생긴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후에, 단군왕검은 조산이라는 나라를 세웠어. 흔히들 이 조산을 고조선이라고 불러. 흔히들 이 조산을 고조선이라고 불러. 그건 태조 이성계가 나중에 세운 조선과 헛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단군 왕검의 조산 앞에 '고'를 붙이고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란다. 고조선의 '우'도는 평양성이었어. 그 후에는 주의 무왕이 은나라 사람을 조신의 왕으로 정해 버리자 수도를 평양경으로 옮겼어. 결국에는 단군왕검은 아다달로 돌아와 '단신'이 되었네.

- 글/ 윤문선



- 뜻풀이**
- *사략하다: 약하다
 - *국삭: 곡물
 - *수명: 생물이 살아있는 기간
 - *정령: 물의 영
 - *형벌: 벌
 - *조건: 어떤 것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

- *이주민: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
- *농경사회: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회
- *딱하게 어기다: 불쌍히 여기다
- *지향하다: 맞서서 바디다
- *태백산: 거꾸기에서 지다
- *수도: 중앙 정부가 있는 도시
- *산신: 산을 지키는 신



뭐야?

달고나

부모님 세대! 알까? 몰까?!!

부모님 세대의 '후역의 근거질' 하면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인 '달고나'를 소개해 볼까 해요. 달고나는 서양과 소다를 녹여 만든 설탕과자 인데요, 국자에 설탕을 수북히 넣고, 약한불에 녹여주면 설탕이 녹게 되고요, 그 때 소다를 약간만 넣어 주면, 녹은 설탕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과자를, 납작한 판에 붓고 누를수록 누른뒤에, 여러가지 모양들로 찍어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적엔, 이 '달고나'에 찍힌 모양을 부수지 않고 먹는 것에 성공하면 공짜로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모양 만드는 것을 성공키 위해 뒷면에도 힘을? 말라미-익-크! 바늘로 살짝 뜯기도 하였답니다. ^^ 요즘에도 멧생각을 하며 집에서 해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 같이 길거리에서는 파는 곳을 이제는 찾아보기는 힘들답니다.

- 글/ 이상아

광고후원

저희 신호세성당 한국교회 아해소식지에 후원광고를 내주시 Mire Financial 에 Anna Hong 자매님께 진실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아해소식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주택대출: 주택구입, 재융자, 2차 용지 / Line of Credit, Cash Out
- ☑ 사업대출(SBA): 미지니스 구입, 비자-비용 건물구입
- ☑ Commercial: 투자를 위한 개인용 구입, 투자를 위한 임대 구입
- ☑ 특별구입: No Down 용지, 비영주권지 / 주택용 / 레크리에이션, 크레딧 상담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금융이 있습니다.



T: 510-661-0300 / F: 510-661-0310
19099 Marine Dr. Suite 125, Newark, CA 94501

어머니 손

공사관을 떠돌며 생활비를 버느라 험악어는 아버지의 집을 조금이라도 빌어 주려고 어머니는 신나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산으로 들로 다니며 나뭇을 헌 뒤 밤색도둑 어머니는 그 나뭇을 다듬었습니다. 어스름 새벽이 되면 어머니는 나뭇행지를 파리에 이고 시오리 산길을 걸어가 나뭇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얘기엄마, 나뭇종 들어가구려, 싸게 주세요." 하지만 장사는 장되는 날보다 안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뭇을 캐서 장사를 하신다는것이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숙제를 다하고 나면 으레 손톱 밑에 까맣게 물들도록 나뭇을 다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톱 밑의 까만 물은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눈앞에 까맣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토요일 까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와야 한다. 다들 알았지?"
평하고 진학준비를 의논해야 하니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시고 갈 사람이라곤 어머니 뿐인데... 나는 선생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옷, 구부정한 허리, 소름돋는 까만 땀구름.....

나는 내심 걱정이 되어 속이 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어머니 손톱 밑의 그 까만 배를 보는 게 싫었습니다. 시부룩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어머니... 선생님이 내일 학교에 오시려요" 하는 수 없이 내뱉긴 했지만 어머니가 정말 학교에 오시면 어찌나 싫어 나는 저녁도 굶은 채 어불을 뒤집어쓰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교부실에 갔다가 나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 어머니!"
선생님은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앉았습니다. "지엄마, 어머니께 효도하려면 공부 열심의 힘이었다."

나는 선생님의 그 말씀에 외막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잡어드린 어머니의 손은 퐁퐁 울어 지팡이간 생채기로 가려졌습니다. 어머니는 팔이 초라한 어머니

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내내 표백제에 손을 담그고 흰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으셨던 것입니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손 등에서 피가 나도 딱 떨어집니다.

무런 가끔씩 어머니의 마음보다는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해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을 무시해버리거나 귀찮아한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것보다 자식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를 위해 어떤 아버지날을 맞이해서 어머니께 "사랑합니다"라는 따뜻한 말을 해드리는데 어떨까요?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

놀이터에 여러가지 쓰레기가 버려져 있네요.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떨어진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나요?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것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 주차는 다른곳에!

우리 학생들이 농구를 하며 놀아야 할 공간에 주차가 되어 있네요. 교감 선생님께서 몇차례 언급을 하셨지만 어쨌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즐겁게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박주영 기자



▲ 그녀 달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당 뒤쪽에는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놀이터가 정작 아이들에게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놀이터에 자리하고 있는 그네에는 그녀가 사실 없습니다. 덩그러니 철봉만 남아있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가 없는 그네를 보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모두가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연선 기자

한국학교 2007학년도 학기 일정표

1월 27일: 봄학기 개학 5월 5일: 운동회 8월 26일: 가을학기 등록 9월 24일: 추수감사절 후교
 2월 17일: President day 후교 5월 26일: Memorial day 후교 9월 8일: 가을학기 등록 12월 22일: 성탄절 후교
 4월 14일: Spring break 후교 6월 9일: 졸업식, 각문 학예회 9월 19일: 한국학교 개학 12월 29일: 연말 후교
 9월 22일: 도기인 연속놀이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이 달백은 한글학교 여러분의 달력입니다. 말하고 싶은 일, 행사 하는 기념일 등을 고지함으로써 알려주시면 다음월에 실어 드립니다. 아래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 | 1 이다현 생일 (보조교사) | 2 | 3 | 4 | 5 어린이 날 한국학교 운동회 |
| 6 | 7 | 8 어버니 날 | 9 | 10 | 11 | 12 수입후 성과와 무용연습 |
| 13 Mother's Day | 14 | 15 스승의 날 | 16 | 17 | 18 김순주 생일 (무공회편) | 19 어린이 미사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김규연 생일 (빙아리2반) |
| 27 | 28 김우재 생일 (빙아리 3반) | 29 | 30 | 31 | | |

모든 요일과 주말이 없습니다.

모든 요일과 주말이 없습니다.



전주교 선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한국학교 Korean School

- 산호세 성당 -
 408-734-9721
 www.sjksmancatholic.org
 531 E. Weddell Dr. Sunnyvale, CA 94089

- 교감 선생님 -
 김진호 알베르트 / 408-123-1224
 e-mail: jk2k1@hotmail.com

- 교지반 -
 408-892-4954 / abaya@gmail.com
 박정신 테드, 박정원 토마스
 박주영, 이주연, 이다현, 윤연선
 이슬기, 이삼애, 김민아

- SPECIAL THANKS -
 지드디자인/모닝뉴스(홍소혜님)
 윤종도, 김우정 미리아 선생님,
 윌립모 선생님
 (교지반 이합 제공 해주신 분들)
 에나용 지매님(광교후반)



추가 요청기사

권애준 생일 (4월 21일 7살)
 빙아리 2반에서 4월 21일 권애준 학생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애준이 부모님께서 생일파티 준비를 해 주셔서 빙아리 2반 아이들이 재미있게 생일파티를 하였습니다. 생일파티 준비해 주신 애준이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애준아, 7번째 생일 축하해~!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개니의 3반을 가르치셨던 임수정 선생님께서 학교를 떠나십니다. 한국학교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선생님~^^

한국학교에 많은 봉사를 해주신 정영보 선생님과 부인어신, 김 크레스티나 여제님 사이에서 5월 7일날 애둥아가기 태어났습니다. 아기어룡을 서명해주고 합니다. 아여 아베라~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5월 12일 한국학교 수업후 30분간 성과와 무용연습이 있습니다. 헌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꼭 꼭 참석하여 주세요!!

교지반 학생 추가 모집

광성이 있는 학생 또는 한겨 TA로 활동하고 있으신 분은 특별활동 시간에 교사로 참여 주시거나 여대일로 영예 주세요.

4,7월 1주
아쉬
 소식지예
 광고 후원 가져드립니다.

한국학교 내에서만 알려질 계획이었던 교지가 주일 미사시간에도 배포가 됩니다